

제4장 북한통계 현황 분석

권순필 · 김서영 · 심규호

제1절 서론

1. 연구 배경

지난 1988년 7월 7일에 우리 정부가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천명한 이래, 최근까지 남북관계에서는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 다방면에서 양적·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일방적이던 대북 지원 정책도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 그 방향이 바뀌고 있으며 이는 간단한 통계 수치 변화만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¹⁾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의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한 앞으로도 확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련의 변화들 속에서 신뢰성 있는 북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식량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정보로 활용되

1) **양적 변화**: 1989년 단 1건에 불과했던 북한방문 건수는 2005년 6천여 건으로 늘어났고, 1989년 1억 872만 달러였던 물적교류는 2005년 105억 575만 달러로 약 60배 증가. **질적 변화**(정책방향 변화): 1995년 23억 225만 달러였던 대북 지원 금액은 2005년 현재 21억 254만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남북협력사업(경제, 사회문화) 승인 건수는 1995년 1건에서 2005년 현재 7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

기도 하고, 남북 경제협력과 같은 대북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대비하는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도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민간에 의한 대북사업이 활성화되고 남북관계가 변화하면서 정부나 연구기관과 더불어 기업이나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북한통계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국의 정보나 관련 통계를 대외에 드러내지 않고 있다.²⁾ 북한의 통계는 대부분 행정정보를 이용한 보고통계로 시장주의 국가들과 같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조사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통계 정보도 분야별로 보면 경제부문 통계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식량부문은 1984년 이후, 인구부문은 1960년대 중반 이후에 공식발표를 중단하였다. 다만 당 기관지나 김일성 연설문 등을 통하거나, 혹은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경제지원을 확보하고 외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는 수준이다(고일동·오강수, 1999). 이마저도 정치적 목적, 시기, 대상에 따라 자의적으로 조작하여 제출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1997년 5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회원국 분담금 결정시 분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 1988~95년 기간 중에 1인당 국민소득 통계를 과거에 비해 대폭 축소시켜 UN분담금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1년 뒤인 1998년에 제출한 통계는 UN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 획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1992~96년 기간의 1인당 국민소득 통계를 UN분담금위원회에 제출한 통계보다 다소 높여서 제출하였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북한의 공식 발표 통계는 부정기적인 발표, 과대·과소 발표, 개념 차이에서 오는 불일치성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북한통계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통계를 이용함에 있어 또 하나의 문제는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통계의 종류와 양이 상당히 적다는 것이다. 북한통계의 특성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사회주의 통계

2) *The Wall Street Journal* (2007.10.1)은 북한 경제를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다.

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허위보고의 문제, 정보의 비공개, 지하경제의 확산, 시장가격의 부재)에 더해 북한 체제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극심한 폐쇄성, 정치·군사적 제약, 심각한 경제난 등)이 추가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일동·오강수, 1999).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접근에 대해서는 제약이 뒤따른다. 설령 정보에 접근했다 하더라도 가용 정보의 양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통계 이용자들이 북한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관계 설정에 필요한 사전 정보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국내외 많은 기관들에서는 북한통계의 직접 인용이나 이용보다는 기관별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가공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추정을 시도하고 있다.

소극적인 북한의 통계 제공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자료와 통계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공식 발표자료, 둘째,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하여 북한이 국제기구 등에 제출한 자료, 셋째, 북한 내부에서 활동 중인 외부기관이나 관찰자들이 북한당국 또는 북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수집한 정보 및 통계, 넷째, 북한당국과 외부기관이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수집·축적한 자료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외 연구기관이 공히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다(견용수·이성수, 2006).

현재 북한 관련 통계는 국내외의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방법상의 차이보다는 추정요인들이 다양함)으로 작성 및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통계의 자료 수집, 가공, 분석의 전 과정이 공개되는 경우는 없다.³⁾ 이는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지극히 폐쇄적인 북한사회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북한정보의 이런 제약적인 속성 때문에 사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관련 정보의 해석에 혼란을 느낀다. 같은 항목에 대한 통계 결과가 작성기관에 따라 때로는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 통계 결과를 공개하는 채널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기관의 어떠한 자료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연구나 조사의 결과가 바뀔 수 있고 이는 그 정책이나 연구의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준다. 일례로 2005년 북한의 국내총생산

3) 이러한 면에서 “북한통계”라는 말보다는 “북한정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Gross Domestic Product: GDP)을 한국은행이 256억 달러로 추정한 반면, 미국의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은 400억 달러로 추정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북한통계”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북한의 정보를 알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통계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통계청에서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북한통계 관리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북한통계의 원시자료 수집, 가공, 배포 절차 등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통계청에서 각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참여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는 북한통계 사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통계를 제공하고자 1995년 이후부터 국가정보원, 통일부, 한국은행 등의 북한통계 작성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요약·정리하여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통계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북한통계의 관리 및 제공 현황을 국내와 해외 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특별히 인구(총인구), 식량(쌀과 옥수수) 생산량, 경제(GDP, 1인당 GDP) 분야 통계의 작성 현황 및 제공 정보를 분석해 본다. 이를 통하여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기관별로 어떻게 다른 북한통계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다양한 통계 자료의 존재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대상은 국가정보원, 농촌진흥청, 한국은행과 같은 국내 기관과 UN, CIA, 유엔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등의 해외기관을 고려한다.

위에서 언급한 세 통계분야는 교류, 협력통계 등과 달리 추정이 필요한 통계이며 북한의 경제사회 현상을 진단하는 데 기반이 되는 중요한 통계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특성이 다른 통계를 이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통계청이 중앙통계기관으로서 북한통계의 작성 및 관리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미래에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정리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기로 한다.

제2절 북한통계 현황

1. 제공 현황

국내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북한통계의 작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가정보원에서 대북 관련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북한통계 작성기관에 제공하면, 각 기관에서는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추정 혹은 가공방식을 이용해 북한통계를 작성한다. 그 결과는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보도자료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북한통계 작성기관으로는 국가정보원, 한국은행, 농촌진흥청, 통일부, 외교부, 기상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있으며 인구, 경제총량, 농수산업, 광공업, 자연환경, 대외거래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기관별 북한통계 제공방법을 살펴보면, 국내 승인통계가 메타데이터⁴⁾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매크로데이터⁵⁾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추정결과에 대해서도 농촌진흥청, 통일부 등은 관련 자료를 E-book이나 개별 문서 파일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자료 제공 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한 관련 자료에 대한 일체의 확인이 어려웠다. 그에 반해 한국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추정방법의 개요, 활용, 이용시 주의사항 등의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고, 북한의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추정 과정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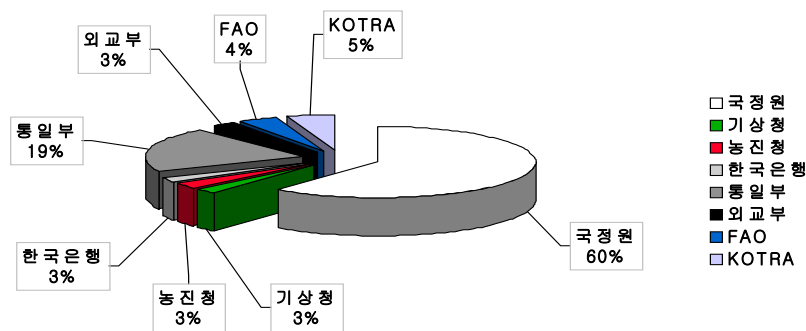
4) 메타데이터(meta data): 자료를 설명해 주는, 즉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

5) 매크로데이터(macro data): 임의의 기준에 따라 집계한 자료. 자료의 집계정도에 따라 세분된 자료부터 통합된 자료까지 다양하게 집계가 가능.

상당히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추정에 사용한 기초자료는 국가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어 원자료 확인은 어려웠다.

북한통계는 위와 같이 각 기관에 다양한 형태로 산재되어 있어 그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1995년 이후부터 북한통계 작성기관들로부터 79종의 북한통계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요약·정리하여 수록한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부록 1 참고).

[그림 4-1] 기관별 북한통계 제공 현황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자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의 기관별 제공 현황을 보면 79종의 자료 중에서 국가정보원, 통일부, 한국은행, 외교부 등 국내 7개 기관에서 약 96%(76종)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직접 공문서로 제공받는 통계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관에서 추정·제공하고 있지 않은 가축사육두수, 원목생산량, 1인당 영양공급량에 대한 통계(4%, 3종)는 FAO에서 인용하여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관에서 추정 제공하고 있는 북한통계의 경우에도 그 원자료는 국가정보원에서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북한통계를 추정함에 있어 국가정보원 자료에 대한 의존도는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상기한 국가 기관 외에도 국내의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언론 등에서 자체적으로 북한 관련 연구소를 운

영하면서 연구논문집 및 간행물 등을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각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기보다는 이미 작성되고 있는 통계를 선별 수록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록된 통계들 중에서 통계청이 자체 작성하고 있는 북한통계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통계의 경우 통계청에서 작성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통계로 등록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자료의 수집, 가공, 분석 등의 과정을 공개할 수 없는 북한통계의 특성과 적절한 과정을 거쳐 공식통계를 생산·제공해야 하는 통계청의 특성이 서로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결과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통계청에서 간행물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북한통계는 각 기관에서 생산된 통계의 단순 취합 노력의 결과물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노력도 이용자 편의 증진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많은 북한 관련 연구들은 북한자료 및 통계의 출처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간행물명을 기재하고 있다.

통계청의 북한통계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표 4-1>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간행물로 제공하는 형태와 KOSIS와 e-나라지표 등의 사이트를 통해 데이터베이스(DB)로 제공하는 형태가 있다.

국외 기관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UN, 세계은행(The World Bank),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FAO, CIA, USDA 등 여러 기관에서 간행물 또는 DB의 형태로 북한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표 4-1> 통계청의 북한통계 제공 현황

형태	구 분	출처
간행물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국내기관, FAO
DB	KOSIS 국가통계포털 > 주제별 통계 > 기타 > 남북한경제사회상 비교	국내기관
	KOSIS 국가통계포털 > 국제통계 > 주제별 통계	국제기구
	e-나라지표 > 분야별 지표 > 정부 > 통일(남북)	통일부
	e-나라지표 > 관련 국제통계 > 국제통계연감	국제기구

UN에서는 인구, 면적, 농업, 경제지표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간행물로는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World Population Prospects* 등의 책자를 발간하고 있고, UN의 홈페이지에서는 자체적으로 작성한 통계와 FAO,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등 다양한 산하기관 및 외부기관에서 작성한 통계를 UN통계국(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UNSD) DB에 함께

〈표 4-2〉 국외기관의 북한통계 제공 현황

국제기구 (해외)	간행물 및 DB명	비 고
UN	•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 World Population Prospects •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 Industrial Commodity Statistics Yearbook 등 • UNSD DB	• DB 특성 - 인구, 경제, 환경, 노동관련 자료 수록 - UN 통계국의 통합 DB - 110여 종의 통계 제공 - 인구 통계의 경우 1950년부터 자료 제공
FAO	• FAO Statistical Yearbook • FAO STAT DB	• 농림수산 관련 90여 종 통계 제공 • 1961년부터 자료 제공
IEA	• Energy Balances of Non-OECD Countries	• 에너지 관련 자료 16종 제공 • 간행물 형태로만 제공되며 업데이트된 최근년의 자료만 제공
CIA	• The World Factbook	• 지리, 인구, 경제(GDP), 통신, 운송, 군사 등 100여 종의 자료 제공 • 간행물 형태로만 제공되며 업데이트된 최근년의 자료만 제공
USDA	• World Agricultural Production	• 작물생산량 관련 자료 제공 • 간행물 형태로만 제공되며 업데이트된 최근년의 자료만 제공
The World Bank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인구, 환경, 경제 등 관련 20여 종 통계 제공 • DB로 2000~05년까지 자료 제공
기타	• US Census Bureau, Global Insight 등	

수록·제공하고 있다.⁶⁾ 제공 통계수는 110여 종이며 통계별로 차이는 있지만 인구통계는 1950년대부터, 에너지 저장 통계는 1990년대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인구, 환경, 경제 등 20여 종의 자료에 대하여 웹사이트 DB에서도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에서도 각 나라의 정부, 경제, 인구, 통신, 군사, 국제문제 등 개괄적인 통계를 수집하여 매년 *The World Factbook*을 발표해 왔다. 47종의 지표별로는 국가순위 자료도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북한 관련 통계의 경우, 1988년도부터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요를 포함하여 100여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⁷⁾ 그러나 일부 항목의 경우 시계열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FAO는 농림수산 관련 90여 종 자료에 대하여 1961년부터 2004년까지 DB형태로 이용가능하며, 특히 식량지원을 대가로 1995~2004년 동안 북한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통계에 비하여 북한의 내부사정을 비교적 자세히 반영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통계청, 2007a, 2007b).

2. 기관별 제공 북한통계 비교

가. 인구

한 국가의 인구를 추계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나 사회를 포함하는 모든 면의 전체적인 규모를 추정한다는 것이고, 이는 그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면서도 가장 유용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폐쇄적인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모의 추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대표적으로 북한이 그렇다.

북한은 인구센서스나 표본조사와 같은 방법보다는 주민등록과 같은 공민등록체계와 보건통계체계를 통해 인구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1960년대 이후 자국의 세부적 인구통계를 외부에 공개한 것이 겨우 두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정보 공개에 인색하다. 공개된 정보 중 하나는 1989년 북한 중앙통계국이 주민등록자료를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에 제출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앙통계국이 1994년에

6) UN : http://unstats.un.org/unsd/cdb/cdb_da_itypes_cr.asp?country_code=408 참고

7) CIA :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docs/profileguide.html>.

「1993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보고한 것이었다. 이 센서스는 1994년 1월에 UNFPA의 지원으로 실시되었고 1993년 말을 조사 기준 시점으로 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실시한 최초의 센서스이다. 자료의 신뢰성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지만 북한당국이 발표한 가장 종합적인 인구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북한은 연령별인구 또는 성별인구 등 세부적인 인구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단지 1995년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식량지원이 증가하면서 북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몇몇 인구통계의 단편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세계에 알려지고 있다(이석, 2004). 그리고 1990년대를 기점으로 대두된 북한의 “식량위기설”은 북한의 인구형태 및 총인구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였고,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인구통계가 북한의 외부로부터 생산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북한인구 추계방법을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UN의 북한인구 추계결과는 그 권위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 내용은 「세계인구연감」의 별권으로 발행된 *World Population Prospects*에 수록되어 있다. UN에서는 1998년을 기점으로 1993년에 실시된 인구센서스를 이용한 인구추계를 시도하고 있는데 1997년까지는 북한이 제공한 등록인구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 당시는 북한이 발표한 자료와 정합성이 있도록 추정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추정량 자체가 북한의 공표 통계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1998년 이후부터는 1993년 센서스를 기초로 인구추계를 하였다.

<표 4-3> 북한인구 추계방법 비교

기관(or 연구자)	연도	이용자료	생명표	추계기간
세계인구추계 (UN)	1997	등록인구조사	극동지역	1950~2050년
	1998	1993년 센서스	극동지역	”
Eberstadt & Banister	1992	등록인구조사	극동지역	1960~2050년
국가정보원	1999	1993년 센서스	일반	1970~2030년

총인구 이외의 가정은 그 때까지 추계한 가정과 다르지 않다. 이 각각의 총인구 추계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1987년까지의 등록인구조사자료와 1993년 센서스 자료와는 상호 정합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1987년까지의 등록인구조사에 기초해서 추계를 하면 1990년 인구는 2,177만 명이고, 이 시점에서 1993년 센서스 인구 2,121만 명을 넘어버린다. 이 기간의 인구성장이 마이너스일 정도로 동태율에 있어서 큰 변화는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1987년까지의 등록인구조사자료와 1993년 센서스 자료 모두에 신뢰를 두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불가능하게 된다(文浩一,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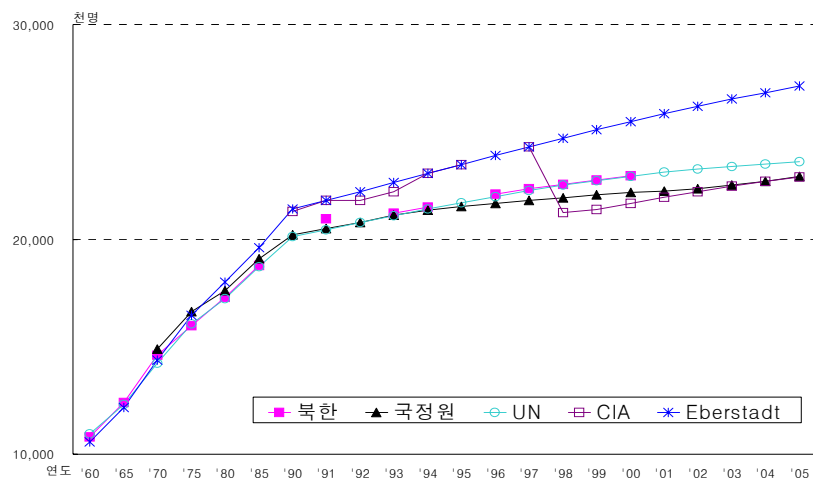
Eberstadt & Banister(1992)의 연구는 1993년 센서스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현시점에서 보면 내용이 오래되었지만, 당시로서는 북한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최대한 이용한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 방법에 의한 추계는 북한이 공표한 총인구추계결과에 주로 의존하고, 그 밖에 한국의 추계 방식과 모델생명표를 이용하여 보완하고 있다. 여성인구에서는 조사누락은 없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보통 성비를 적용하는 것에 의해 남성인구를 도출하고, 그것에 의해 계산된 총인구 추계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위 가정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저자가 북한 공표인구통계를 위해 절대적으로 의존한 것은 총인구 통계이다(文浩一, 2004). 이처럼 국외기관의 연구는 북한에서 공개한 자료에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있으며, 북한 공표 통계에 숨겨져 있는 일부의 인구, 예를 들면 군인수와 같은 부분적인 정보를 수정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1999년에 상세 인구추계를 행했다. 이 경우 추계에 있어서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제공 자료에 다분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추계결과와 약간의 추계방법에 관한 요지가 공개되어 있을 뿐이다. 국정원 추계의 기초자료 역시 북한의 1993년 인구센서스를 이용했다. 이 외에도 탈북자(여성 및 보건분야 조사자를 중심으로)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출산형태, 사망, 결혼, 이혼, 의료, 보건상태, 식량난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그 외에도 「조선중앙연감」 수록자료, 북한대표단의 국제회의 발표자료, 북한당국의 국제기구, 외국방문단에 보고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추계하였다(통계청, 1999). 한국은 1993년 센서스 이전 추계에 관해

서는 UN 인구추계와 같은 추계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UN 인구 추계와 다른 이유는 사용한 생명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UN이 극동부의 모델 생명표(Far Eastern Model Lifetable)를 이용한 것에 비해 한국은 일반 생명표(General Lifetable)를 이용하고 있다. 미국 중앙 정보국의 인구 추계는 인구센서스, 인구동태를 보여주는 주민등록통계, 또는 최근에 공개된 정보 등에 기초를 두어 미국 센서스국에서 작성한 통계를 이용한다.

각 기관별 북한 총인구 추계 자료를 살펴보면 [그림 4-2]와 <표 4-4>와 같다. 북한이 공표한 인구 통계와 UN의 추계 총인구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UN의 인구 추계가 북에서 공표한 총인구에 근거하여 추계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2000년대 이후로는 UN의 북한 추계인구가 국정원과 CIA의 추계인구보다 대략 백만 명 정도 많게 추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berstadt & Banister의 추계는 1993년 센서스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연구였으나,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 부족 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상당히 과대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른 추계 결과와 직접 비교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 기관별 북한 총인구 추계 자료



〈표 4-4〉 기관별 북한 총인구 추계

(단위: 천명)

연도	북한	국정원		UN		CIA		Eberstadt & Banister	
			차이		차이		차이		차이
1960	10,789	-	-	10,946	-157	-	-	10,568	221
1965	12,408	-	-	12,323	85	-	-	12,172	236
1970	14,619	14,905	-286	14,247	372	-	-	14,388	231
1975	15,986	16,646	-660	16,072	-86	-	-	16,480	-494
1980	17,298	17,622	-324	17,239	59	-	-	17,999	-701
1985	18,792	19,097	-305	18,721	71	-	-	19,602	-810
1990	-	20,221	-	20,143	-	21,293	-	21,412	-
1991	20,960	20,495	465	20,454	506	21,815	- 855	21,815	-855
1992	-	20,798	-	20,774	-	21,815	-	22,227	-
1993	21,213	21,123	90	21,097	116	22,227	-1,014	22,646	-1,433
1994	21,514	21,353	-	21,414	-	23,067	-	23,067	-
1995	-	21,543	161	21,715	99	23,487	-1,673	23,487	-1,673
1996	22,114	21,684	430	22,000	114	-	-	23,904	-1,790
1997	22,355	21,810	545	22,269	86	24,317	-1,962	24,317	-1,962
1998	22,554	21,942	612	22,518	36	21,234	1,320	24,721	-2,167
1999	22,754	22,082	672	22,745	9	21,386	1,368	25,114	-2,360
2000	22,963	22,175	788	22,946	17	21,688	1,275	25,491	-2,528
2001	-	22,253	-	23,122	-	21,968	-	25,853	-
2002	-	22,369	-	23,272	-	22,224	-	26,197	-
2003	-	22,522	-	23,401	-	22,466	-	26,525	-
2004	-	22,709	-	23,514	-	22,698	-	26,838	-
2005	-	22,928	-	23,616	-	22,912	-	27,137	-

주: 차이는 북한 공표 통계와 각 기관별 추계 결과와의 차이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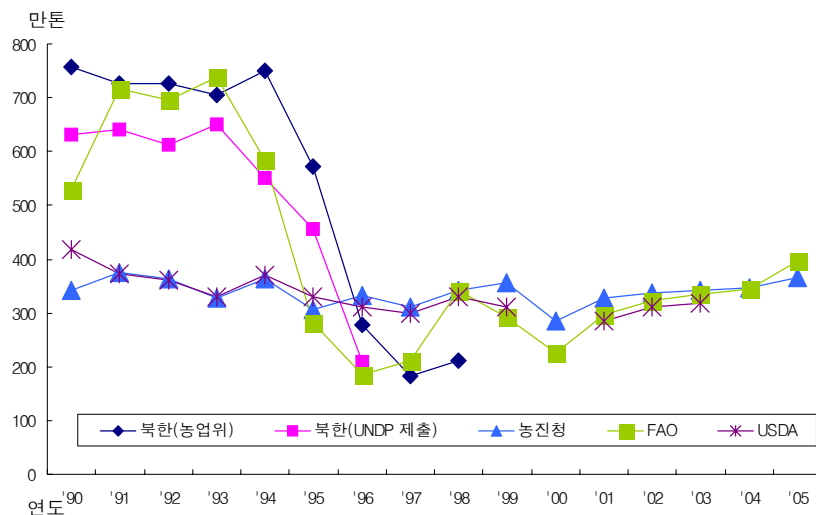
자료: 文浩一(2004);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각년도;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각년도; CIA, *The World Factbook*, 각년도; Eberstadt and Banister(1992).

나. 식량

북한은 FAO가 외부지원이 필요한 위기국가(총 33개국이 포함)로 분류한 국가의 하나이며 접근성마저 상당히 결여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FAO는 북한을 위기국가로 분류한 주원인으로 경제난과 홍수를 열거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은 한국,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고 있다. 북한의 2006년도 식량 상황에 대해 FAO는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공식적으로 407만 톤으로 추정(쌀 164만 톤, 옥수수 196만 톤)하였고, 2006/2007년 곡물수입 필요량(주로 식량지원)은 96만 톤으로 예측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07).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는 북한의 2006년도 식량 상황을 고려, 북한의 곡물생산 추정량을 448만 톤으로 추정(쌀 189만 톤, 옥수수 175만 톤, 기타 잡곡⁸⁾ 84만 톤)하였다.

농촌진흥청은 북한 곡물생산량에 대해 북한의 당해 연도 기상과 병충해 발생 및 비료 등 농자재 수급상황 등을 종합 분석하고,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자료를 검토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 중 재배면적은 정보 활동, 인공위성 자료, 탈북자 의견, 기상청 자료 등을 이용하여 관련 기

[그림 4-3] 기관별 북한 곡물(쌀+옥수수)생산량 추계



8) 기타잡곡 : 맥류, 두류, 잡곡, 서류

〈표 4-5〉 기관별 북한 곡물(쌀+옥수수)생산량 추계

(단위: 만톤)

연도	북한	농진청		FAO		USDA	
			차이		차이		차이
1990	758	341	417	530	228	418	340
1991	726	376	350	717	9	372	354
1992	727	364	363	696	31	360	367
1993	706	328	378	739	-33	330	376
1994	750	364	386	584	166	370	380
1995	573	306	267	282	291	330	243
1996	277	332	-55	186	91	310	-33
1997	182	310	-128	211	-29	300	-118
1998	211	341	-130	343	-132	330	-119
1999	-	355	-	292	-	310	-310
2000	-	286	-	226	-	-	-
2001	-	327	-	296	-	285	-285
2002	-	337	-	323	-	310	-310
2003	-	343	-	334	-	319	-319
2004	-	347	-	344	-	-	-
2005	-	365	-	396	-	-	-

주: 1) 차이는 북한 공표 통계와 각 기관별 추계 결과와의 차이를 말함.

2) 쌀 생산량은 정곡 수량임.

3) FAO 자료는 쌀의 조곡 생산량에 도정수율 72%를 일률 적용하여 계산한 수치임.

자료: 북한 농업위 발표 자료;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각년도;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각년도; USDA, “World Agricultural Productin”, 각년도.

관간 협의 후 확정된 자료를 국정원으로부터 제공받고, 생산량은 환경, 지대, 지역 등이 북한과 비슷한 북한 접경지역과 인접지역 등에 시험포를 운영하고 작목별 전문가들과 16개 요인(기상, 재배환경, 재해, 지대 등)을 가지고 협의하여 추정한다. FAO는 식량지원을 대가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북한에 직접 들어가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경우 북한이 접근을 허용한 지역에서만 활동이 가능하긴 하였지만, 2000년 이후 약 5천 명 정도의 북한 주민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가 가능하였기 때

문에 다른 기관에 비해 현지 사정을 반영하는 데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USDA 산하 해외농업국(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에서는 세계 각국의 농업정보에 대한 보고서와 자료를 매월 발간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고 있다. 북한의 생산량 정보는 쌀, 밀, 옥수수, 두류 등의 곡물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 생산량에 대한 각 기관의 추정 결과를 보면 [그림 4-3], <표 4-5>와 같다. 비교의 용이성을 위하여 쌀과 옥수수에 대한 추계 결과만 수록하였다.

FAO는 조곡 자료를 발표하고 있어 도정수율을 72%로 일괄 적용하여 정곡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1995년 이전까지는 북한과 FAO의 생산량이 농진청이나 USDA에 비해 상당히 크게 발표되었던 경향이 있으나, 1995년부터는 그 차이가 줄어들었고 북한의 공표 결과도 마찬가지로 급감하였다. 이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의 호우 피해 등에 따른 감소와, 대외 식량 지원을 얻기 위하여 그동안 부풀려 제공해 왔던 생산량을 보다 현실적으로 발표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FAO, 농촌진흥청, USDA의 추계 생산량은 비슷해지고 있어 단편적인 북한의 통계를 통해서도 예전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경제

북한에서는 경제총량에 대한 지표로서 사회총생산과 국민소득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총생산물(Gross Social Product)이란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사회의 모든 생산부문에서 창조된 물질적 부를 전 사회적 범위에서 개괄한 총량”을 말한다. 즉, 공업, 농업, 건설 등 생산적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사회생산물의 총계이다. 따라서 사회총생산물의 개념에는 국가관리, 교육, 과학, 예술 등과 같은 비생산적 서비스부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국민소득(Net Material Product)은 “사회총생산물 중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상한 나머지 부분, 즉 그 해에 새로이 창조된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국민소득은 사회총생산물에서 고정자본 감가상각충당금과 중간재 투입비를 제외한 부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북한의 국민소득은 시장경

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민소득과 개념상의 차이가 있고 통계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거래수입금이나 보조금의 규모, 비생산적 부문의 생산액 등)를 확보하기 어려워 정확히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이러한 이유로 한국을 비롯하여 외국의 전문연구기관들은 북한에서 발표되는 불규칙적인 자료와 현대적 측정장비(위성 등)를 이용하여 자본주의적 개념에 부합하는 북한의 국민총생산,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과 1인당 GNI · GDP, 경제성장률 등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추정하기도 어렵지만, 이 지표가 한 나라의 국민 후생수준이나 소득분배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경제체제가 다르고 경제이론도 다른 북한의 국민소득을 지극히 제한된 자료에 기초하여 우리의 개념에 맞게 추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오차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외부에서 추정한 북한의 경제지표를 가지고 북한의 후생수준을 평가하거나 남북한 경제력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북한의 경제지표를 추정하는 기관으로는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대표적이고, 국외에서는 CIA, UN, Global Insight 등이다.

한국은행은 1991년 이후 매년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북한 경제성장률을 추정하고 있다. 이 작업은 북한의 경제력을 우리의 경제 시각에서 비교 ·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북정책에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추계방법인 UN의 국민계정체계(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를 적용하여 추정한 국내 전문가들의 검증과정을 거쳐서 확정하고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를 통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이 자료는 북한경제의 개괄적인 생산활동 동향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파악하는 데 국내외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북한경제를 우리나라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남 · 북한간의 경제력 비교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향후 남 · 북 경제통합에 대비한 소요비용을 산출하는 데도 유용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입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국민계정과 관련한 모든 지표(경제성장률, 산업구조,

명목GNI, 1인당 GNI)는 남한의 가격, 부가가치율 및 환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함에 따라 이들 지표를 여타 나라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한국은행, 2006). 또한 사용한 기초 통계는 다시 국가정보원에 반납하는 등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 통계를 통해 추계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미국의 CIA는 해마다 *The World Factbook*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이 제공하는 자료는 Angus Maddison이 OECD를 위해 수행한 연구에서 만든 북한에 대한 구매력기준(Purchasing Power Parity: PPP) 국내총생산에서 유도되었다. 최근의 자료를 살펴보면 북한의 국내총생산의 실제 증가율과 미국 GDP 수정인자에 근거한 인플레이션 요인을 사용하여 2005년까지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05년 GDP 실질성장률은 1%로 보이고 1인당 GDP는 1,700달러로 추정되었다. 다만 CIA의 자료는 상당부분 개략적인 수치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정확한 지표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UN의 북한 GDP 추계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관련 메타데이터를 살펴보는 것으로 그 대략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나머지 다른 통계와 마찬가지로 이 기관들에서 제공한 북한 GDP 추계값의 직접적인 비교는 각 기관이 발표하고 있는 GDP 추계방법, 계절조정 방법과 자료 수집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흐름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림 4-4]에서는 기관별 북한 1인당 GDP 추계 자료를, [그림 4-5]에서는 기관별 북한 GDP 추계 자료를 볼 수 있다.

북한의 발표자료는 북한이 국제기구 등에 제출한 제출자료, 북한당국자가 기자회견과 같은 외부와의 접촉 과정에서 발표한 자료 등으로 성격이 나뉘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발표 자료는 정치적 목적, 제출시기, 제출대상에 따라 다르게 제출된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조금씩 통계를 제출하기 시작한 1988년 이전 자료를 보면 그 수치가 상당히 부풀려져서 발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보이며, 1988년 이후 공식적으로 제출된 1인당 GDP 자료는 한국은행이나 CIA의 발표 자료와도 일정 수준 이상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

기관의 GDP 추계시에 사용된 세부 항목에 들어간 수치가 각각 한국과 미국의 그것이었기 때문에 이 수치들로 북한의 경제상황을 직접 유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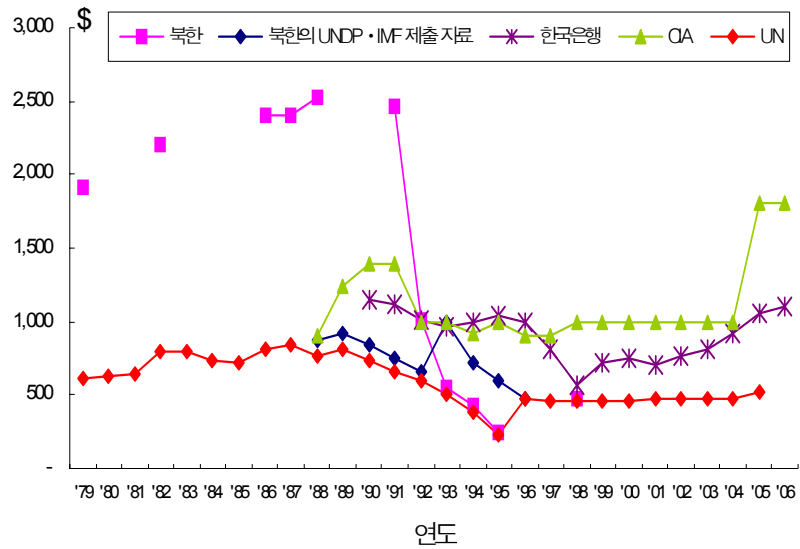
〈표 4-6〉 Democratic People's Rep. of Korea – Metadata

(Component: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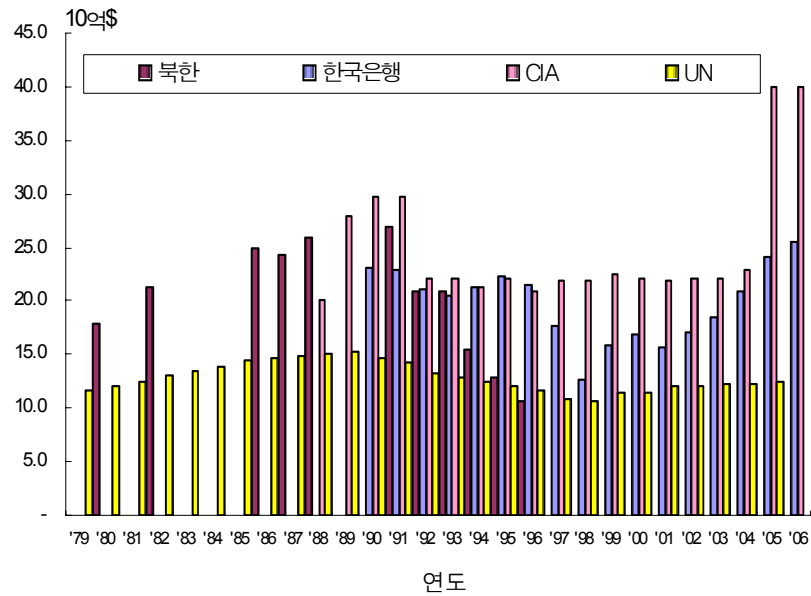
기간	관련기관	Source	방법
1970~1974	Bank of Korea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Derived by applying the average growth of GDP of 1971-1975 at 10.4%
1975~1979	"	"	Derived by applying the average growth of GDP of 1976-1980 at 4.1%
1980~1984	"	"	Derived by applying the average growth of GDP of 1981-1985 at 3.7%
1985~1988	"	"	Derived by applying the average growth of GDP of 1986-1990 at 1.4%
1989	"	Website (http://www.bok.or.kr)	Derived by applying the annual real growth rate of the item of this source
1990~1994	"	"	Derived by applying the backward trend of GDP at constant prices
1995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National Accounts Estimates	Derived by applying the current prices from this source for baseyear period
1996~2004	Bank of Korea	Website (http://www.bok.or.kr)	Derived by applying the trend of GDP at constant prices
2005~2006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National Accounts Estimates	Derived by applying the average growth of the previous 2 years

자료: UN 통계국(<http://unstats.un.org/unsd/snaama/metadata.asp?table=102&CCode=408>).

[그림 4-4] 기관별 북한 1인당 GDP 추계 자료



[그림 4-5] 기관별 북한 GDP 추계 자료



〈표 4-7〉 기관별 북한 GDP와 1인당 GDP 추계 자료

(단위:10억달러, 달러)

연도	북한			한국은행		CIA		UN	
	GDP	1인당 GDP	국제기구 제출자료	GDP	1인당 GDP	GDP	1인당 GDP	GDP	1인당 GDP
1979		1,920	-	-	-	-	-	11.6	615
1982	21.3	2,200	-	-	-	-	-	13.0	801
1986	24.9	2,400	-	-	-	-	-	14.6	804
1987	24.4	2,400	-	-	-	-	-	14.8	836
1988	26.0	2,530	868	-	-	20.0	910	15.1	764
1989	-	-	911	-	-	28.0	1,240	15.3	811
1990	-	-	835	23.2	1,146	29.7	1,390	14.7	735
1991	27.0	2,460	753	22.9	1,115	29.7	1,390	14.2	663
1992	20.8	1,005	659	21.1	1,013	22.0	1,000	13.3	593
1993	20.9	547	994	20.5	969	22.0	1,000	12.8	503
1994	15.4	432	721	21.2	992	21.3	920	12.5	384
1995	12.8	239	590	22.3	1,034	22.0	1,000	12.0	222
1996	10.6	-	481	21.4	989	20.9	900	11.6	479
1997	-	-	-	17.7	811	21.8	900	10.8	462
1998	-	467	-	12.6	573	21.8	1,000	10.7	456
1999	-	-	-	15.8	714	22.6	1,000	11.4	452
2000	-	-	-	16.8	757	22.0	1,000	11.5	462
2001	-	-	-	15.7	706	21.8	1,000	12.0	476
2002	-	-	-	17.0	762	22.0	1,000	12.1	468
2003	-	-	-	18.4	818	22.0	1,000	12.3	471
2004	-	-	-	20.8	914	22.9	1,000	12.3	473
2005	-	-	-	24.2	1,056	40.0	1,800	12.4	517
2006	-	-	-	25.6	1,108	40.0	-	-	-

주: 국제기구는 UNDP, IMF임.

자료: 고일동·오강수(1999);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각년도; UN통계국; CIA, *The World Factbook*, 각년도.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 분야의 경우 인구나 식량생산량 분야와 달리 최근에 생산하여 제공하는 자료들도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GDP와 1인당 GDP를 각각 242억 달러와 1,108달러로 추정한 것에 비해, CIA와 UN은 각각 400억 달러와 1,800달러, 124억 달러와 517달러로 추정하였다. 경제 분야의 통계를 이용함에 있어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3절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기관별 북한통계의 제공 현황과 추계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북한통계는 이용가능한 정보의 양이 적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외부에서 추정하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공개되어 있는 각 통계의 원시자료나 추정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북한의 경제 사회현상 파악에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인 인구(총인구), 식량(쌀, 옥수수)생산량, 경제(GDP, 1인당 GDP) 통계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농촌진흥청, 한국은행 등 국내기관의 추정 결과와 UN, CIA, FAO, USDA 등 해외기관의 추정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런 면에서 이 연구는 북한통계의 작성과정 및 추정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같은 성격의 통계가 기관별로 어떻게 얼마나 다른 통계치로 제공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북한이 직접 발표한 통계의 경우, 때때로 정치적 목적, 시기,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제출되고 있지만, 국내외 기관에서 추정되는 통계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외개방 정도가 커짐에 따라 이용가능한 정보의 양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북한의 실상 파악이 과거보다는 더 용이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기관별 정보의 공유가 활발해진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안개’가 멀지 않은 시기에 걷혀지고 별도의 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북한의 통계를

바로 인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도 가능하게 한다.

북한통계는 기초자료 수집단계에서부터 나름대로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완전한 공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관련 연구자들은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통계의 생산 과정이 공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기관에서 생산되는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작성 과정을 가능한 수준까지 최대한 공개하기를 권고한다. 이를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발간물이나 DB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것도 이용자 중심의 통계 제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통계’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북한정보 이용자들은 통계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북한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관련 기관에서 분야별로 작성하는 분산형 시스템이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자체적으로 작성·제공하고 있는 북한통계는 없다. 왜냐하면 원시자료를 포함한 기초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통계청에서 각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참여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국가통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의 전반을 수행하고 있고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북한통계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계청의 역할이 일정 정도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북한통계의 작성 및 제공을 위해 수행가능한 통계청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북한통계 관련 통합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발간물, KOSIS, 그리고 e-나라지표를 통해 79종의 북한통계를 취합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시의성 있게 자료를 갱신하도록 하고, 국제기구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검토 후 선별하여 추가 수록하는 등 자료 제공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더불어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통계 인프라나 조사 노하우를 이용하여 북한통계 작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연구나 관계기관 협의회 참여, 북한과의 교류 협력⁹⁾과 같은 실질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

9) 필요하다면 북한과의 기술, 인력 교류를 통한 통계에 대한 공동연구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방정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장경제로 진입한 중국과 베트남이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으로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통계 연구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는 남북의 통계작성 기법이 상이함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그 격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다.

다만 북한 전문가가 부족한 통계청에서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인력, 조직,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 자문 기관 등 - 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전문기관은 북한과 관련한 명확하지 않은 정보,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기초자료와 각 기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통계들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고 관련 연구 결과가 정책 수립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통계청의 북한통계 제공과 관련한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확보될 수 있고, 통계청에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북한통계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과 전문 연구기관 간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는 등 기관간의 협력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전용수·이성수(2006), “북한의 자료·통계수집 및 관리”, 북한포럼 정
기세미나, 국토연구원.
- 고일동·오강수(1999), 「북한 경제통계의 실태와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kor/statistics/north_farming.php.
- 농촌진흥청(2006), “2006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 추정 발표”, 보도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4), 「2003/04 북한경제 백서」.
- 이석(2004), “1994-2000년 북한 기근: 초과 사망자 규모와 지역별 인구변
화”, 「국가전략」, 제10권 1호, pp.117-144.
- 통계청(1998), “북한통계의 작성현황과 필요성”(내부자료).
_____(1999), “북한 인구 추계 결과”, 보도자료.
_____(2006),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_____(2007a), “북한관련 통계자료 확대방안”(내부자료).
_____(2007b), “북한통계관련 국외 세부자료”(내부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07), “국제기구의 대북구호활동 및 북한의 식량전망”,
「북한경제리뷰」.
- 한국은행(2006), “2006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도자료.
- 文浩一(2004),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人口推計研究ノト：センサス統
計と登録人口調査統計との整合性に關す検証”, Discussion Paper
Series, Hitotsubashi University.
- CIA, *The World Factbook*, 각년도.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gams/default.jsp>.
- Eberstadt, Nicholas and Judith Banister(1992),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Berkeley : Korea Research Book, 1992.
- FAOSTAT, <http://www.fao.org/statistics/>.

FAO/WFP(2004),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SDA, “World Agricultural Production”, 각년도.

United Nations(2002),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s Parties Democratic People Republic of Kore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Common Database, <http://unstats.un.org>.

< 부 록 >

◇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책자 제공 통계

부 문	자 료 명	종수	제공기관
자연환경 (5)	영토의 이용, 광물자원 매장량, 행정구역 현황	3	국가정보원
	평균기온, 연간 강수량	2	기상청
인구 (5)	총인구, 인구밀도, 성별인구 및 성비, 분단 이후 출생인구,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5	국가정보원
농수산업 (10)	농가인구 및 농가인구비율, 농가호수 및 호당경지면적, 경지면적 및 식량작물 재배면적, 경지면적의 구성, 농업생산성지표, 수산물 어획량	6	"
	식량작물생산량, 주요 곡물생산량	2	농진청
	가축사육두수, 원목생산량	2	FAO
광공업 (10)	산업생산지수, 석탄 및 철광석 생산량, 직물 생산량, 화학섬유 생산능력 및 생산량, 비료 생산능력 및 생산량, 판유리 및 시멘트 생산량, 철강공업 생산능력, 조강 생산량, 비철금속 생산량, 자동차 생산량 및 선박 건조량	10	국가정보원
대외거래 및 경제협력 (5)	무역총액, 수출입액, 주요국별 수출입, 주요국별 교역비중 변화추이	4	KOTRA
	대미환율	1	국가정보원
경제총량 (3)	국민총소득(GNI) 및 경제성장률, 산업별 성장률	2	한국은행
	산업구조	1	국가정보원

(계속)

부 문	자 료 명	종수	제공기관
사회간접자본 (8)	철도 총연장, 전철총연장 및 전철화율, 지하철총연장, 철도차량 보유대수, 도로 총연장 및 고속도로 길이, 자동차 등록 및 항공기 보유대수, 항만 하역능력, 선박 보유 톤수	8	국가정보원
교육 (4)	교육체계, 교육기관수, 학생수, 인구 만 명당 대학생수	4	"
에너지 (5)	원유도입량 및 정유능력, 1차에너지 총 소비량 및 1인당 소비량, 1차에너지 소비구조, 발전설비용량, 발전량	5	"
보건 (4)	평균수명, 의·약사수, 준의료활동 종사자수	3	"
	1인당 영양공급량	1	FAO
남북한 교류 (14)	북한방문, 분야별 북한방문, 남한방문, 남북주민간 접촉, 분야별 남북주민간 접촉, 반출입 통관현황, 위탁가공 교역현황, 반입통관 품목구조, 반출통관 품목구조	14	통일부
수교국 및 국제기구 가입현황 (4)	지역별 수교현황, 단독수교국 현황	2	외교부
	국제기구 가입현황, 재외공관 현황	2	국가정보원
남북협력기금 (2)	기금조성현황, 연도별 용도별 집행실적	2	통일부
합 계	8개 기관, 13개 부문, 79종의 통계자료 제공		